

교육공무직 복지체계 구축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처우 개선·차별 해소 종합정책 발표 방학 중 무임금 폐지... 휴가 등 복무 기준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선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20일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다른 대우를 받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방학 중 무임금 구조를 없애고, 교육공무직 중심의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교육복지 전담 부서 신설을 통해 돌봄·급식·특수교육·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정책 설계 단계부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무하는 연중고용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보전수당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급식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리용 저감 설비와 환기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조리종사자 1인당 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해 인력 부담을 줄인

임금과 고용 구조 개선 방안도 포함했다.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급식·돌봄 등 주요 직종은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연중고용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다는 방침이다. 스포츠·영어회화 강사 등 지속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과 직종화를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 지역 교육공무직의 임금과 근무조건을 전국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휴가와 병가 육아 등 복무 기준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원칙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현장의 변화는 교실뿐 아니라 급식실과 돌봄 현장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공무직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사진 가운데), 황호진 전 부교육감(사진 왼쪽) 등이 최근 4·19 혁명 66주년을 맞아 전북대학교 내 4·19 혁명 진원지를 찾아 민주영령을 참배하고 있다.

“민주주의 정신, 교육으로 계승하겠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4·19 혁명 66주년 맞아 전북대 4·4 운동 연금... 민주시민 교육 강화 방안 구체화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4·19 혁명 정신을 전북교육에 접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민주시민 교육 강화 의지를 공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4·19 혁명 66주년을 맞아 전북대학교 내 4·19 혁명 진원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는 교실에서 완성된다"며 "질문하고 토론하는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최근 단일화를 이룬 황호진 전 부교육감과 이경한 공동선

대위원장이 동행해 '통합 선거정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전북대 4·4 운동을 언급하며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전북대학교 4·4 운동은 4·19 혁명의 불씨를 지닌 대학생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이라며 "동학의 평등 정신과 4·19의 민주주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억강부약(抑強扶弱)·대동세상(大同世上)'을 핵심 교육철학으로

제시하며 교육격차 해소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성적과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을 넘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북교육의 상황평준화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시민 교육 강화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 후보는 "4·19 정신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현재의 교육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질문하는 교실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주열 열사의 희생과 같은 민주주의 역사를 자부심으로 삼아, 학생들이 그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주권자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창의융합 영재캠프 운영 | 초등생 200여명 참여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이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력 향상에 나섰다.

전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지난 18일 초등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의융합 영재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교실을 벗어나 다양한 현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학생들은 과학관을 방문해 전시 관람과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과학적 탐구 역량을 키웠다. 이어 미술관에서는 작품 감상과 해석 활동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함께 소통 능력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이언스데이'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실험과 탐구 활동에 참여하며 과학 원리를 체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캠프 전 과정에는 교사와 교육지원



전주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지난 18일 초등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의융합 영재캠프'를 운영했다.

청 관계자가 함께해 학생 안전 관리와 교육 효과를 높였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의 폭을 넓히고, 협력과 소통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체험 중심의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광학 장치 없어도 시선 의도 읽는다

전주대·인하대·KIST 국제 공동 연구팀 뉴로모픽 반도체 기반 인터페이스 기술 구현

전주대학교 문성철 교수와 인하대학교 김지훈 교수·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민철 박사 연구팀이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배상훈 교수·버지니아 대학교 이규상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첨단 뉴로모픽 AI 디바이스와 전자피부 기반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경일대학교 정시우 교수·국립군산대학교 고종현 교수·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고현우 박사과정 연구원 등이 공동 1저자로 연구에 참여하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안과 서영우 교수·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안과 이화 교수의 의학적 자문 및 임상적 관점의 검토를 더해 다학제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이번 한미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인터페이스는 기존 웨어러블 시선 추적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가의 광학 기반 장치 없이도 실시간 시선 인식이 가능한 차세대 휴먼-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로 평가된다.

시선 추적 기술은 확장현실(XR), ICT, 모바일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기존 기술은 부피가 큰 광학 장

치와 높은 전력 소모, 외부 서버 기반 연산 의존성으로 인해 웨어러블 환경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부에 밀착되는 전자피부(e-skin) 기반 인전도(Electrooculography, EOG) 센서와 뉴로모픽 반도체를 결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융합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개발된 전자피부 센서는 눈의 수직 및 수평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안구 운동 신호를 안정적으로 연속 측정할 수 있고, 이를 어텐션 기반 스파이크 신호로 변환한 뒤 경량 스파이킹 신경망(Spiking Neural Network, SNN)을 통해 실시간 시선 정보를 해석한다.

특히 저항성 메모리 소자인 RRAM(Resistive Random-Access Memory) 크로스바 어레이를 활용해 신경망 연산의 핵심인 백터-행렬 연산을 하드웨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집중 환경을 고려한 학습과 가중치 양자화 기법을 적용해 낮은 전력 소모와 지연 시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안정적인 추론 성능을 확보했다.

이 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버 없이 기기 내부(Edge)에서 연산이 수행되

도록 설계돼 사용자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으며, 기존의 헤드마운트 광학 장치를 제거한 글래스스(glasses) 구조를 통해 착용 부담도 크게 줄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몰입형 컴퓨팅 환경, 장애인 보조 인터페이스 차세대 모바일 헬스 모니터링 기술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성철 전주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전 바이오전자 소자와 뉴로모픽 프로세서를 결합해 웨어러블 공지는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라며 "향후 저전력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반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기술 발전에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merican Chemical Society(ACS)가 발행하는 나노과학 분야 권위지 ACS Nano 온라인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XR 미래 인터페이스를 위한 크로스 생체신호 센싱 시스템 개발), 지역대학우수과학자(적응형 XR 크로스모달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및 KIST QPU 집적광학플랫폼 기술 개발 산업융합자립부고취도 OLEDs 모듈 기반 중소형 웨어러블용 라이프월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기술 등의 지원을 받았다.

/김재훈기자

장애학생 그림에 이야기를 더하다

전북교육청, 그림책 '여행을 떠났어' 제작... 학교 현장에 보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장애학생의 작품을 활용한 공감 교육 그림책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전북교육청은 장애학생이 직접 그린 그림에 동화 작가의 이야기를 더한 그림책 '여행을 떠났어'를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림책은 도내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그림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여기에 동화 작가가 이야기를 입히는 협업 방식이 더해져 완성도를 높였다.

책에는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여행을 떠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청은 그림책을 파일 형태로 우선 제공하고,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와 영상 콘텐츠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 대상 연수를 통해 제작 과정과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일부 교원에게는 인쇄본도 배부해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그림책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자리 잡아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서·논술형 평가 확대, 사고력·창의성 키운다

전북교육청, 교원 역량 강화 평가 전문가 양성 연구·선도학교 운영 병행... 대입 제도 대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대응해 단순 암기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서·논술형 평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원 역량 강화와 평가 전문가 양성에 집중한다. 실습 중심 연수를 통해 전문 강사단을 구성하고,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업과 평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보급해 교사들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연구·선도학교 운영도 병행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서·논

술형 평가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지정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채점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평가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축적한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중·고등학교 교사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진행하는 등 현장 준비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평가 모델을 정립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는 목표다.

교육청은 이번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고교학점제 안정적 정착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전북교육청, 98개 고교 대상 대면 컨설팅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20일부터 이틀간 도내 9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대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교감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학교별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기존의 일괄적인 지침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각 학교의 계획서를 토대로 1대1 상담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진로·학업 설계 지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방안, 학생 공간 시간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교원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 계획 등 필수 운영 요소가 충실히 반영됐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관련 예산이 기준에 맞게 편성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전주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중심 독서 교육 활성화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독서 교육 활성화에 나선다.

전주교육지원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149개 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활용교육 및 독서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독서 미션을 수행하며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책린지 데이', 시 창작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융합형 독서 교육 '전주다시', 지역 서점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 '책방순례' 등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독서 활동을 넘어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기획돼,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상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